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계 란(영남대 박사과정) · 이 지 민(영남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유형)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대구·경상북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 177명(남학생 89명, 여학생 88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안은미(2006)의 다문화 적응척도(이중언어, 이중문화) 8문항과 이정주(1997)의 사회적 지지원(가족, 친구, 교사)과 지지유형(정서적, 정보적, 자존감, 물질적)을 수정·보완한 18문항이었다. 학교생활적응척도는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학교흥미도, 학교규범준수태도)을 수정·보완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Cronbach's α ,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가족형태,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확대가족의 아동이 남학생과 다른 가족형태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국적이 태국인 응답자의 학교흥미도와 전체학교적응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적응,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흥미도의 경우 교사 지지가, 학교규범준수태도의 경우 친구 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또래친구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아동 학교흥미도의 19%, 학교규범준수태도의 27%, 전체학교적응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바르고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제도적 노력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수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